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6강 정의란 좋은 것인가 II

◆ 1교시 좋음이란 무엇인가 2

책 분량이 좀 많은데, 이제 오늘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 뒷부분인데요. 4권 뒷부분인데, 먼저 그 2권, 그 지금까지 쪽 얘기해왔듯이 2권부터 시작해서 10권까지, 2권부터 시작해서 9권까지, 적어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정의가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구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2권 중반부터 한 4권 중반까지 이제 그이상국가라고 이야기할만한 이제 그것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수업에서, 우리 세미나에서는 좀 주목을 좀 그러니까 덜하고 이제 좀 빨리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본적인 영혼을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나누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것이 앞으로의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혜는 뭐고, 용기는 뭐고, 절제는 뭐고, 이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의 지배와 욕구, 무질서한 영혼의 비참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왕과 행복, 이런 얘기들을 쪽 할 텐데요. 그런 논의들에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영혼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 갈 텐데.

▲ 글라우콘이 말하는 좋음 -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지난 시간에는 기게스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도전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글라우콘의 논점은 일단은 이제 좋은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죠. 그 자체로 좋은 것하고, 그 자체로 좋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 그 다음에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정의가 그 중에서 세 번째 범주에 속한다. 자체로는 좋은 게 아니라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구요.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게스의 반지를 끌어들이었죠. 기게스의 반지처럼, 기게스라는 사람이 가졌던 반지처럼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반지인데요.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될 경우에는 부정의한 행동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다닐 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거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정의는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글라우콘이 하는 건데요.

이 글라우콘의 주장에 보면, 다소 좀 글라우콘이 어쩌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실제로 좋은 것하고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시작하면서 사실, 좋음의 세 가지를 나눌 때 말이에요. 교재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357

에 a부터 나오는 부분이구요. 우리 책은 그 123쪽입니다. 123쪽에 그 중간쯤에 보면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러면서 좋음에 대한 세 분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자체 때문에 반기며 갖고자 하는 그런 것,” 뭐 그렇게 얘기를 하구요. 조금 이제 넘어가서 c라고 된 데를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들 때문에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구요. 이제 그 다음에 124쪽 넘어가서 “좋은 것의 셋째 종류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하려하는 것도 그것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보수라든가 그 밖에 그것들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사실 주장과 당위 주장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돈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뭐, 무슨 자동차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위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하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 당위하고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 어떤 대답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글라우콘이 끌고 들어간 것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하고 당위를 구별하는 것은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문제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글라우콘이 주장하는 요 사실에 대한 주장, 기게스의 반지를 끌어들어서 글라우콘이 사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인데, 예컨대 정의로우면 생기는 좋은 결과들, 정의로우면 무슨 좋은 평판 같은 게 생긴다든지, 혹은 뭐 정의로우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정의로운 사람일 경우에 거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 같은 것 얻을 수 있고요. 뭐 이제 부정의한 행동했다가 걸리면 벌금도 물고 감옥도 가고,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도 없게 되겠죠. 지금 이런 주장들은 사실에 대한 주장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글라우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정의로우면 어떤 평판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평판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명예가 생긴다. 정의로우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기에 앞에, 그 조건 절에서 앞에 와야 될 것이 이게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정의로워 보이면 어떤 평판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실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그 주장하는 것을 지난 시간 다른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견 틀렸고, 정의로우면 명예가 생기고, 정의로우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의로워 보이기만 하면... 실제로 정의로운 것하고 정의로워 보이는 것을 구별해가지고요. 정의로워 보이기만 하면 경제적인 이득 생기고, 명예 생기고 그런 것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스의 반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부정의하다 하더라도, 부정의한 행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 부정의해보일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게 될 때는 정의로운 척하고 다녀가지고 정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정의로우면 얻게 된다고 하는 그 결과들,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정의로움의 결과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볼 때 정의로움에 결과들은 단순히 정의로워 보임만 있어도 그 결과들은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글라우콘이 하는 중요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의가 좋은 것이 지금 요런 쪽으로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어떤 결과들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제로는 정의로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실로부터 글라우콘이 어떤 이제 그 뭐 당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좋은 평판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일,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명예 얻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뭐 그 특별히 그게 힘든 일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명예 얻는 것 자체는 다 좋아할 수 있고요. 돈을 얻을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자체는 그냥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것도 역시 사실에 대한 주장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글라우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결과들이고, 역시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은 기꺼이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정의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면, 정의를, 정의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말이죠. 그렇다면 나서서 그것을 할 거다. 굳이 그렇게 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떤 것을 기꺼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킬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그것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꺼이 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굳이 그거에 대한 당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 돈 벌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당위 주장으로 보통 안하고, 뭐 돈 벌면 뭐 그 좋겠지,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들을 써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들 돈 벌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 돈 벌어야지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잘 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돈 벌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뭐 그 도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도 안하구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당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글라우콘이 한 얘기는 사람들이 정의를 그 자체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들만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다. 누구도 기꺼이 정의롭지 않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정의, 필요한 것은 정의로워 보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언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계스의 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워 보이는 것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실제로 좀... 뭐 정의롭지 않으면서 정의로워 보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내 행동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부정의한 행동하면 사람들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의로워 보일 수 있는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계스의 반지 같은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 글라우콘과 소크라테스의 정의 -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당위 판단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생각에 가만히 보면 이제 사실하고 당위가 특별히,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서 글라우콘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들만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것 좋아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정의로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는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주장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의는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는 자체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당위의 판단하고 관련해서, 정의를 그 자체로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의 대한 주장으로부터,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당위하고 관련한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당위하고 관련된 주장이에요. 그렇죠?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어떤 당위에 대한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정의는 그 자체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 역시, 지난 시간에 이것은 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그 주장은, 예컨대 무슨 이제 칸트식의 정언명법 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소크라테스 역시 이 당위하고 사실을 잘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글라우콘의 그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떻게 보자면, 정의 그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행복하려면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정의로우면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그럼 뭐예요? 이게 사실이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정의로우면 된다. 이것도 역시 계속 사실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복하려면 정의로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특별히 윤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산적인, 이해타산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같은 것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 사실과 당위의 구분 필요성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실하고 당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나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하다, 뭐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사실에 대한 주장이죠. 그래서 당위는 뭐 어떠어떠해야한다, 라는 주장이구요. 이것(사실)은 뭐 어떠어떠하다, 무엇 무엇이다, 뭐 이런 주장이구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 당위가 Sollen, 영어로는 Ought to예요. 사실은 이제 Sein, 영어로 치면 be동사,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Fact, 뭐 이런 이야기를 하구요. 사실하고 당위를 구별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하구요.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구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들었던 얘기가 사실로부터 그냥 당위를 무조건 이끌어낼 수가 없다. 만약에 사실로부터 그냥 당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썼다가 이거 지울게요. 자연주의적인 오류.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도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흑인은 아이큐가 낮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한 때 20세기 초반 이럴 때도 흑인들은 뭐, 아이큐가 낮다. 만약에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로부터 당위로 넘어가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하고, 그 방금 이제 글라우콘이 얘기한 것하고 관련된 자연주의적 오류는 이런 것이예요. 사람들이 X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X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주의적인 오류가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돈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로부터 당위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선 일단 분명히, 사실과 당위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 그로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쓸까요? 자연주의적인 오류. 사람들이 어떤 것을, X를 좋아한다는 얘기로부터 X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과 당위를 지금 혼동한 거예요. 분명히 사실하고 당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한단 얘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단 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 2교시 좋음이란 무엇인가 3

▲ 당위 주장에 함축된 사실에 대한 전제

그러니까 그 사실과 당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과 당위가 완전히 따로 독립적인 것이고, 따로 노는 것이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것은 구별할 필요이고요. 다음으로 사실과 당위가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위는 어떤 종류의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건 당위 판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위에 대한 주장은 어떤 사실이나 하면, 어떤 능력에 대한 사실 주장을 함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하늘을 날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너 하늘 날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나는 날수가 없는 사람이고, 너 하늘 날아야 해, 너 슈퍼맨이 되어야 해, 그건 실제로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뭘 해야 된다, 라고 누구한테 주장을, 혹은 그런 명령, 명령이라면 좀 강합니다만. 뭐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위하고 사실하고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인간의 능력이 어떤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 정말 이기심을 전부다 버리고 그 어떤 이타심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인간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이타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위하고 사실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완전히 두 개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하고 관련된 사실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해야지 된다, 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소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려면, 도대체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려줄 수가 있어야 되요. 그런 그 전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로 보자면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것을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서 이건 진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거 해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요거 지우기 전에... 사실과 당위를 명백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흄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사에서 이 주제자체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칸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밑 부분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의무론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칸트

가 지금 이런 주장을,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칸트가 주장한바 자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지금 당위가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요.

▲ 일반적 견해 - 사실에 따른 당위의 변경

그러니까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심 좀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너 자신보다 남을 생각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애들보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나누며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도덕, 이런 걸 생각하자, 그렇게 갈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약한데... 그 동안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하필왈이(何必曰利)', 왜 이득을 따지냐, 뭐 그런 도를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고답적인 이야기지,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느냐, 뭐 빵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돈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그동안 사람들이 맨 날, 소위 도덕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런 얘기들 해왔는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인간에 대해서 허황된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딴 소리 하는 거지, 실제로는 돈 다 좋아하는 거고 사람들이 돈 추구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말고 돈이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누구나 돈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대신에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잘 지켜가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속마음에 다 추구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뭐, 그냥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딴 소리,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소리만 한다,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당위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방금 전 이야기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당위의 우선성에 초점을 맞춘 칸트

칸트 자신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었어요. 칸트는 거꾸로 갑니다. 지금 방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 돈을 추구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당위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한다면, 칸트는 거꾸로 당위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는데, 칸트는 당위 쪽에 초점을 맞춰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제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떠한 어떠한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단 거예요. 칸트가 생각하기에 그 무조건적인 도덕적인 명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적인 도덕적 명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전부 다 참이다. 실제로 그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칸트 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편화 주지죠. 그런 것이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면 인간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위를 먼저 놓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지. 가만히 보라, 우리가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때, 예컨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따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인 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칸트는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칸트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 주장에서 사실이 뭐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놓고 나서 사실을 기준으로 당위를, 당위적인 판단들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처럼, 칸트처럼 당위에 대한 판단을 더 핵심에 놓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변명일 뿐이다,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 자체만을 가지고는 사실하고 당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해주기는 좀 어려운 원리라는 겁니다. 사실하고 당위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뭔가 이제 좀 같이 가는 것이다. 사실 이 당위를, 그 뭐예요, 어떤 종류의 당위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그 원리는 분명히 맞지만 그 원리 자체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전혀 반대되는 주장들이 이 원리에 맞는다는 근거로 제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당위와 사실 사이의 구체적 원리

그래서 이 원리가 그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다소 피상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사실하고 당위가 연결될 필요로 또 한 가지를 끌어들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원리는 그 구체적인 사실이 뭔지, 구체적인 당위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어려운 것인데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봅시다. 누구도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그 사실하고 당위를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다 X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X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구도 X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걸 누구도, 어떤 X가 있을 때 누구도 X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험적인 사실일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실이죠. 누구도 X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X를 해야 한다는 원리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1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곤란하냐? 누구도 X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X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봐야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다들 어떤 것을 싫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걸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데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무도 X를 좋아하지 않을 때 X를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 지금 이제 2번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과 당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X를 좋아한다는 것로부터 X를 해야 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도 X를 좋아하지 않는 것로부터는. 그런데 거꾸로, 그 반대의 경우 X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하고 어떤 당위가 있을 때 어떠어떠하다는 사실이, 어떠어떠하다하는 것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

다, 혹은 그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꼭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해도 괜찮다, 그런 당위하고 관련된 주장들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면, 두 개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연결고리가 없어도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

▲ 당위와 사실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가치 사실

그러면 뭔가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요. 사실하고 당위가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 그 매개가 뭘까, 라는 질문에서 이것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가치에 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사실과 당위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단순히 사실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X를 좋아한다, 혹은 X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당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X를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좋아한다, 그 싫어한다, 이런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뭐 그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당위에 대한 판단들입니다.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오는 건 뭐냐면 X가 좋다, 라는 것, 이게 가치에 대한 사실이에요. 여기가 꼭 사실을 좀 강조하면 X가 실제로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아까 글라우콘의 이야기에서는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그 자체로 좋은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이 가치에 대한 사실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이 사실은 반드시 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좋지 않지만, 누가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구별이 무의미하다, 실제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좋다, 나쁘다, 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실은 없고, 가치 자체에 대한 사실은 없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런 사실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치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그냥 이것을 좋아해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좋다, 라는 것이.

만약에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간에, 실제로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좋은 것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느냐? 아직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종류의 그 심리적인 전제가 있으면, 심리적인 어떤 전제... 예컨대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 좋은 것을 좋아한다, 라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진짜 좋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 만약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사실들이 전제가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라는 또 어떤 가치, 이제 사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당위판단이기는 합니

다만, 그 연결고리가 되는 당위판단으로, 예컨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좋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들 같은 것이 추가가 되면, X라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이제 이 구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치에 대한 사실, 그것이 없으면 사실과 당위의 간격을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격을 메우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은 사실과 가치를 혼동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가치사실하고 당위하고요. 사실하고 당위를 혼동해버리면 그 매개자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실과 당위는 다른 것이고 그냥 단순히 연결은 좀 안 되죠. 어떤 매개자가 필요한데요. 매개자로서 가치에 대한 사실이 있어야지만, 그 어떤 당위하고 사실의 간격을 메울 수가 있다.

▲ 플라톤의 가치사실 = ‘좋은 의 이데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가서, 『국가』에 가서 보면, ‘좋은 의 이데아’라는 것을 끌어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데아라는 것은, 플라톤에서 이데아라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어떻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진짜로 있는 것이 이데아인데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나중에 ‘좋은 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것이 가치에 대한 사실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오늘날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사람들... 뭐 좀 했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단순히 주관적인 좋음이 있고, 객관적인 어떤 좋음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좋음이 있어서 네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좋음이 있으면, 내 개인하고 관련해서요. 나는 특별히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은 아닙니다만, 맛있는 음식이나, 맛없는 음식이나, 이런 문제일 때는 사람들이 이거 맛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실제로 나한테 맛이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거 비싼 거고 맛있는 거야, 엄마가 애한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하면서 쫓단 말이에요. 먹어보니까 애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거라 이야기해봐야 개한테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맛이 있다, 라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나한테 맛없으면 맛없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몸에 좋은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이요, 그때는 내가 이걸 싫어요,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음식이 나한테 몸에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몸에 단 것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객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있을 테고요.